

‘광주청년드림’ 국가사업 된다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시책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주거·복지 등 통합 관리 강화

광주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인 청년드림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회의에서 범부처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5개 부처의 대책이 소개되고, 청년일자리 중심의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확정됐다. 광주청년드림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에 포함돼 전국 지자체로 확대, 국가시책으로 발전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은 그동안 추진돼온 중앙정부 하향식 청년일자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검증된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분권형 지원방향을 담고 있다.

또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책을 벗어나 주거·복지·공동체 등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청년드림 등 지자체에서 시행한 선도사업에 4월 편성 예정인 추경예산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청년드림 등의 선도사업을 타 지자체에서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광주청년드림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무현장에서 일경험을 하고 급여를 지원하면서 민간 취업으로 유도하는 일자리 디딤돌이다. 공공기관, 기업, 청년

창업기업,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청년활동의 6개 유형으로 나눠 지역의 다양한 직무현장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장을 직접 선택하도록 해 높은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청년참여자가 33%가 직무현장에서 정규직 전환되는 성과를 거둬 일자리위원회·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가 공동주최한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청년드림 일경험 등을 포함한 광주형 청년보장으로 지역 시비 140억 원을 투입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역청년들의 당당한 자립을 시장의 중심에 놓고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사업으로 확대되는 청년드림이 전국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8주년 3·15의거 기념식 15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회관에서 제58주년 3·15의거 기념식이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산구의회, 송정역 환승센터 조기 건립 촉구

광주 광산구의회가 수년째 표류중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을 조기 건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4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삼용(가선거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호남권 교통중심지로서 역할 강화와 경제 성장 거점을 위해 추진된 광주, 전남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개통 전에 비해

주말 기준 281% 증가한 하루 평균 2만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조속한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관계기관의 입장차이로 백지화되고, 사업규모도 축소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순한 주차타워 건립이나 편의시설 설치만 아닌, 환승터미널 기능이 포함된 종합적 환승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광주시, 한국철도공사 등에 발송됐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고광완 신임 전남도 기획실장



고광완(51·사진) 행정안전부 유엔거버넌스센터 협력국장이 16일자로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된다.

장성 출신인 고 신임 실장은 행정고시 38회로 서울시립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엑스터터 대학 석사, 국민대 언론정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 실장은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지원부장, 행정자치부 성과관리과장 등을 역임, 지방사업에서 국제업무까지 두루 섭렵한 종합 기획능력을 갖춘 행정통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군수 후보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서대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서 후보는 “오늘은 58년 전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의해 일어났던 3·15의거 날이다”며 “이번 선거에서 ▲절대 부정 없는 깨끗한 선거 ▲민주주의의 더 발전시켜 지방자치분권 실현 ▲일자리 구청장 ▲사회 약자와 서민들이 편안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 후보는 16일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찾아 들불야학의 선배인 윤상원 열사 등의 묘지를 참배하고, 동구 동명동 ‘I-플렉스’(PLEX)를 찾아 서구지역에 청년일자리 지원센터 유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현출 “청년이 돌아오는 백운광장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성현출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청년들이 돌아오는 백운광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성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문 대통령께 보고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발맞춰 우리 지역에서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참여를 통해 자생력 향상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구현될 수 있다”며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정체성 강화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젊은 도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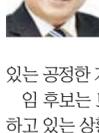
윤난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반대”



더불어민주당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지난 12일 동안의 고공 농성을 중단하고 지역사회의 각계, 각층과 공동연대를 선택한 금호타이어 노조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해의 자본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금호타이어 문제는 일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정 협치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 문제이다”며 “재권단의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보장과 체불임금 해결, 불완정성 해소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정치인, 시민사회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임한필, 구별 후보정책토론회 제안



더불어민주당 임한필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각 구별로 후보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후보의 정책역량, 공약 실현방안, 집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과 일반시민이 후보의 역량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하는 정당으로서 바로서기 위해서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함께하는 후보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서 당원과 일반시민의 알권리와 함께 올바른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내, 남구 ‘문화예술 골목길’ 프로젝트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15일 남구 내 노후 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소형 상시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골목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웰산동, 사직동, 방림동, 양림동 등에 방치된 빈집 등을 적극 활용하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골목길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광주의 대표적인 근현대사 문화거리인 양림동에 인문학 창작공간을 만들고 주변 거리와 건물을 활용해 시와 인문학이 어우러진 문화길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문화예술 골목길”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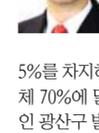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광산구청장 출마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이 15일 6·13 지방선거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회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자리 걱정 없는 살기 좋은 ‘풍요로운 광산’을 만들기 위해 70만 생산 소비자족도시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수십년 동안 지역에서 세무와 회계와 관한 전문가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호흡을 같이 해 왔다”며 “지역 실물경제의 흐름과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제전문가”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 자문위원,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사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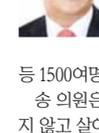
윤봉근 “찾아가는 자원봉사로 노인복지 실현”



더불어민주당 윤봉근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15일 “지역의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성화’ 등 실현가능한 노인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광산구는 광주면적의 44.5%를 차지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그 중에서도 농촌지역이 전체 70%에 달해 농촌 중심의 성장기반을 다져왔다”며 “비약적인 광산구 발전의 주역은 현재의 노령층인 만큼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유형을 개발하고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형근, 고흥서 자전 에세이 출판기념회



고흥군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송형근 전남도원이 지난 13일 고흥군민회관에서 자전 에세이 ‘고흥은 어머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송영길·이재호 국회의원, 권옥 전남도의회 부의장, 지역민 등 1500여명 참석했다. 송 의원은 “어머니로 상징되는 따뜻한 내 고향 고흥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고흥 토박이로서 고향발전에 대한 염원을 저서에 담았다”며 “변혁과 변명을 이끌어 내 고흥의 밝은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재선인 송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욱·오광록기자 jwpark@kwangju.co.kr

※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TV소리·말소리, 잘 안들리세요?!

- 대한보청기 -

“시중 실구입가보다 무조건 더 저렴하게!!”

고급보청기 12채널!! (무료:청각장애등급자) A/S·배터리 5년 무료

광주·전남지역센터 1:1 고객 맞춤상담 062)430-8900

순천·여수지역센터 061)741-4880

전북·전주지역센터 063)251-4999

www.maxo.co.kr

◆장안본점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